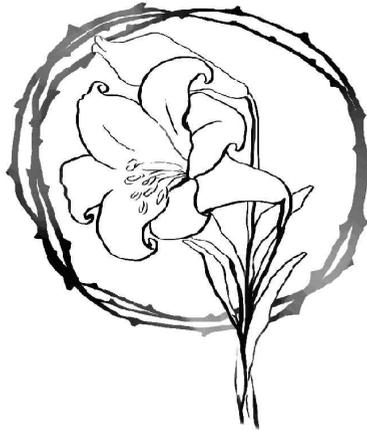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5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9. 하늘에 가득 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복잡다단한 세상사 중에도 부지런히 새로운 생명의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꿈꾸는 모습과 그 꿈을 성실히 이루어 가는 모습을 닮게 해 주십시오.

주님, 청년주일을 맞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에 짓눌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청년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청년들이 저 산과 들의 나무와 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몫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요일 1:7 ..... 인도자  
 ▲ 교 독 문 ..... 97. 청년주일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고정한 청년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574. 가슴마다 파도친다 ..... 다 함께  
 ▲ 성경봉독 ..... 행 26:12-18 .....  
 I. 인도자  
 II. 김지은 청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양 ..... I. 날마다 ..... I. 마중물 찬양대  
 II. 크고 영화로우시다 ..... II. 청파찬양대

말씀	.....	<b>결정적 순간</b>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b>2부찬양</b>	.....			1,2청년부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을 위해 치달던 걸음을 멈추십시오. 새롭게 뜻을 세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셨음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멈추어 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홍 목사

## 참 좋은 데로 흘러가는 오늘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배고파'를 외치던 다울이가 요샌 조용하다. 일어나 자마자 후딱 옷부터 갈아입고 밖으로 튀어 나가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딜 다니러 갔는지 아침 먹자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한참 뒤에야 바지가 다 젖은 채로 나타나 빙긋이 웃는다. "아침부터 어딜 다녀온 거야?" "신선못 공사 현장에 다녀왔어요. 어제까지 독을 새로 만들었는데 밤에 비가 와서 독이 잠겼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손을 봤더니 진짜 멋져요. 엄마도 한번 가 볼래요?" "신선못? 아, 너희들이 요즘 한창 노는 데 말이지?"

그렇다. 아이들은 요즘 골목길 질주 놀이(쌍쌍이, 친구빠빵,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신나게 달리는 놀이)가 시들해졌는지 영역을 넓혀서 수봉 할머니 논 아래쪽 냇가까지 가서 놀고 있다. 처음엔 섬을 만든다며 돌을 옮기고 흙을 쌓고 난리더니, 어느새 연못 만들기에 들어갔나 보다. "이따 눈에 가면서 볼게. 아빠가 눈에 일이 많다고 해서 말이야. 허리 아픈 사람이 끝끝내 논농사를 짓겠다고." 나도 모르게 다울이한테까지 하소연을 늘어놓을 뻔했다. "이제는 아빠 혼자 농사짓기 힘든 거 알지?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다 같이 장화 챙겨 신고 눈으로 출발! 비온 뒤라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냇물 따라 걸으며 어제보다 더 짙어진 숲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핫플레이스 신선못에 다다라 그 깜찍한 자태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일 좀 시키면 힘들다 배고프다 말 많은 녀석들이 무거운 돌들을 버쩍버쩍 들어 만들어 놓은 멋진 놀이터를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눈에 도착을 해서 보니, 다울 아빠는 벌써 작두로 벚짚을 썰고 있었다. "무리하지 말고 살살해, 살살! 나는 뭐 하면 돼요?" "저쪽에 작두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걸로 벚짚 썰어요. 다울이랑 다랭이는 여기저기 밟고 다니면서 논

에 풀 좀 뽑으라고 하고." 내키지 않지만 작두를 들고 질척한 논으로 들어가  
벗짚을 썬다. 방법은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니 쉽지가 않아 짜증이  
났다. 신랑 들으라는 듯이 쏘아붙였다. "이런 일은 진작에 했어야지. 벗짚 상  
태가 안 좋으니까 잘 썰리지도 않네." "뭐라구요? 잘만 썰리는데? 벗짚을 작  
두대 위쪽으로 바짝 붙이고 썰어 봐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 주는데 '썩둑!  
썩둑!' 시원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벗짚 썰리는 소리라니. 이상하다 생  
각하고 말해 준 대로 해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감을 잡았다. 그러자  
짜증도 사라지고 일이 재밌어지는 것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칠거칠 벌거  
숭이 느낌의 일맛!

내가 그렇게 작두와 친해지는 사이,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다랑이는 눈에  
서 넘어져 옷풀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니는 집에 가고 싶다 노랠 부르고, 다  
울이는 시킨 일은 안 하고 논흙으로 장난만 치고 있으니 말이다. "다울아,  
동생들은 그렇다고 쳐도 너는 이제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 나 지  
금 독 만들고 있어요. 눈에 물 흐름이 좋아지게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골풀 심어 놓은 곳 주변으로 독을 만들어 물길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각종 흙장난은 물론이요 냇가에서 놀아 본 가락까  
지 있어서인지 독 만드는 솜씨가 제법이었다.(역시! 노는 게 힘) "대단하네.  
대단해. 앞으로 논독 정비나 독 만드는 일은 다울이한테 맡겨야겠다. 그나저  
나 지금은 벗짚 좀 눈에 뿌려 줄래?" "네!" (대답은 잘도 해 놓고 또 얼마 지  
나지 않아 논독 작업에 빠져들었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며 놀았다. 비릿하게 느껴지던 논흙 냄새가 향기  
롭게 느껴질 때까지. 우당탕통탕 엄마야 아빠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맛  
도 배우고 함께 있음의 든든함을 깨닫는 우리 가족의 오늘! 이 오늘이 참  
좋은 데로 흘러가고 있음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정청라,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 2019.5.2판

정청라 -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 길이 된다는 것'임을 떠올리며 노래로  
길을 내면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맑은 당신의 눈앞에, 맑은 당신의 눈빛 같은 것들이

- 박 준

구미로 간다 한번 가보지 않은 구미에는 군화 끈을 목에 걸고 죽은 고참이 살았고 아버지가 세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한 농공 단지가 있고 세상 끝의 맛을 낸다는 음식점들이 있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친구도 근방 공단에 새 직장을 얻었다고 했다 구미로 가는 길에서 나는 죽은 고참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를 부른다 취한 아버지가 자주 넘어진 골목, 누워 있던 어둠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본다 가을에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들이 있다고 믿는다 유난히 끝을 잘 맺지 못하는 나의 습관을 그대로 둔다 구미로 가는 길, 아니 어딘가로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멀어서 나는 더 먼 걸음을 하고 있을 당신의 눈을 기릴 수 있다 그런 당신의 눈앞에도 맑은 당신의 눈빛 같은 것들이 설핏 내비쳤으면 한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고혜경 김도윤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정훈  
 이진영<sup>a</sup>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종수 이순정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sup>b</sup>  
 김충실 조아라 김홍수 전성호 김훈동 유경순 남선옥 문금석 박기원 이미영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박지혜 변재민 이소혜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해나  
 송인선 신문희 안지민 안홍숙 홍순구 양정규 우경환 유금주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임진엽 임찬양 임찬양 장현희 전현선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정윤성  
 서효진 정종삼 정효진 조경환 조관행 홍선희 조순덕 조영훈 최윤희 최형경  
 노진래 한성건 정지혜 허신열 허정호 허호범 박성실 무명1

### 감사헌금

강신철 이해경 김나름 김보배 김성순 김옥곤 김일재 김준호 광혜자 김태정  
 김현미 문금석 박창운 허정운 오은영 유명호 지성진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이광재 이범석 류정옥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태석 임종수 전근우 전정현  
 이재삼 정용구 이삼남 정학성 김현숙 최정희 함정희  
 허명선 무명2

### 생일감사헌금

김영희 정효진

###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영락 김용길 최영혜 김일재 김지현 김향자 방종미 윤건희 무명1

##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청년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원로나들이** : 세종시로 원로나들이를 갑니다. 21일(화)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세종청파교회와 대통령기록관 공원을 둘러보고 옵니다.
  4. **웨슬리집회** : 중구용산지방 웨슬리회심기념집회가 오늘부터 수요일(22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집회 시작은 오후 4시입니다. 청파교회는 21일 저녁집회 안내 담당입니다.
  5. **임원회** :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활동보고 및 계획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입니다. 공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고성 지역 산불로 예배당이 소실되고 어려움을 당한 두 교회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나훔 1:1~8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윤성종	김현주	이재훈

5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b>헌금위원</b>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정민	문홍일	김광일	이혜령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송형운	고속이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김현주	김문주	홍복선	허정윤	박효선	전정현	이재삼	한성건
다음주식당봉사	최승주	김인숙	이소선	김세영	이순정	권 산	조호진	송정근
오늘설거지봉사	1,2 청년부			<b>다음주설거지봉사</b>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